

코요테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시는 분은 김전일씨 입니다.

이 분은 북한에서 탈출하여 일본에 정착한 전직 무용수 입니다. 현재 이 분은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.

이번 전시를 위해 잠시 고용된 이 외국인 분은 이러한 연기를 대행 해 주는 조건으로 하루 8시간, 시간당 5달러를 받습니다. 이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.

이 분의 성공적인 연기를 위해 만지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십시오.